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3호 2010. 9 113~131쪽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 분석*

이채식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험들을 극복함에 있어 청소년의 인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위험사회이론에 관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위험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w자료수집은 지역사회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 안보영역, 재난영역, 국민생활영역, 국가갈등 영역 등 유형별 위험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이 연구수행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들은 영역별 위험인식에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위험, 교통사고, 범죄위험, 식품위험 등 국민생활영역에서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테러, 대형화재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인식이 낮았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위험인식의 차이에 있어 전쟁위험, 아동·청소년 범죄, 교통사고, 경제위험 등의 위기영역에 있어 중학교 청소년이 초등학교의 청소년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았으며, 셋째, 연령이 다소 높은 청소년이 연령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대체로 위험인식이 높았다. 이것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증가 , 식품위험 및 경제위험 등 국민생활영역의 위험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생활영역의 위험 및 위기관리에 대한 정책적 실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위험인식, 위험사회, 지역사회 청소년, 국민생활영역

Ⅰ. 서 론

경제와 시장을 중심으로 시도된 개별국가의 장벽을 넘어선 지구화는 이미 일상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변화는 촘촘하게 짜여진 지구화를 통해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실에 있어 지구화의 담론은 긍정결과 혹은 부정결과가 강조되는 논쟁중이다. 공업화는 19세기 사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wealth)를 가져준 반면 20세기 말의 현대사회에는 위험을 선물하고 있다(Beck, 1992, 1995). 물질적 풍요속에서 환경위기를 비롯하여 서구 선진 산업사회의 위험 생성 및 전개구조를 비판적으로 제기하면서 위험사회론은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유문무, 2004). 지구화는 시장거래를 통해 현대인에게 생활의 풍요와 편의를 제공하며 사회를 보다 부유하게 만들며 전 세계의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갖도록 하는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있다. 반면, 지구화는 선진국(부유층)이 저개발국(빈곤층)을 착취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0년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하도록 하며,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변화는 전통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Anantho, 2007). 특히 발전과정의 부산물로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는 새로운 양태의 기술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재해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기술위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김영평 외, 1995). 이러한 세계 각국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와 인위적인 재난의 급증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은 군사적 위기로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 위기에서 보다 포괄적 위기로 전환하게 되었다(이덕로・오성호・정원영, 2009)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과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위험물질의 대량 생산의 결과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차, 지하철 등의 각종 교통사고, 대형건물붕괴, 가스폭발, 화재, 새로운 전염병 확산, 원자력관련 사고, 수질·대기·소음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속에서 우리 사회는 처해진 위험에 대처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며 위험에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가 처한 위험 및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학회, 2009)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와 냉철한 사회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후기 근대화속에서 우리 사회에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개인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청소년은 사회불안과 함께 개인의 '불안감'이라는 일상적 불안에 놓여있음이 제기된다(안주희, 2008).

지금까지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박동균, 2004, 2005a, 2005b; 안형기, 2002; 차용진, 2006: 이승훈・최수정, 2009; 이상헌, 2008; 정기성, 2004; 설동훈, 1998; 박상범, 2008; 김영평외, 1995),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사회 및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안주희, 2008; 배대식, 2009; 이영애, 이나경. 2005, 박영신・김의철, 2001),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위험 및 위험인식의 유형을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 위험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역별 위험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Ⅱ. 위험과 위험인식

www.kci.go.kr

1. 위험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이란 자연적 사건이나 인간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의 상태이다(Renn, 2008; 이승훈, 2009). 위험은 근대성 자체에 의한 불안전과 위험을 대응하는 체계적 방식으로 정의된다. 위기(crisis)와 위험(danger)과 구별되어 제시되기도 한다(박명준, 2006) 위기는 한 행위자가 자신의 위협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다. 위기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 것이다. 위기는 시간적 급박함과 상황적 위태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전환기적 상황이다. 반면 위험은 객관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험사회에서 현재의 위험(risk)은 과거의 위험(danger)과는 다른 근대성의 위협과 지구화에 관련된 산물이다(Beck,1992). Luhmann(1991)은 사람들이 피해의 원인을 외부의 결정이나 자연에 귀속 혹은 자기 결정에 귀속에 따라 사회적 위협의 수용양태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danger)와 위험(risk)을 구분하고 있다. 위해는 전통사회에서 준비없이 당하는 재해에 대한 인식이라면 위험은 각종 위험산정과 합리적인 예방조처를 취하고 맞는 현대사회의 재해로 인식된다(노진철외. 2004).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부정적 개념, 위험은 불확실성 및 우려와 관련되며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회의적이다(Austen, 2009). 이러한 위험의 개념은 긍정과 부정의 산물을 다루는 중립적인 용어에서 점차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부정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Douglas, 1992). 위험에 대해 후기 근대성은 존재론적 불확실과 염려로 특징화된다(Giddens, 1999).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사회에서 위험은 지역적이거나 특정-공동체를 너머 지구화되며 전체 인종에 대한 위협이 된다(Beck, 1992, 1995).

2. 위험인식의 유형

위험은 현대의 산업사회의 두드러진 양상으로 묘사된다. 위험의 인지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위험인식은 사람들이 위험의 치명성과 특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해당한다. 여러 이론들은 왜 사람들이 위험의 크기를 다르게 예측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되었는데, 심리분석과 문화이론이 대표적이다. 위험인식의 심리분석은 개인토대적 접근으로 위험기제에 직면한 개인이 위험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낸다(Jackson, Allum & Gaskell, 2006). 불확실성하에서 전형적, 발견적인 유용성, 발견적인 등의 3가지 발견법이 시도되었다(Tversky & Dahneman, 1974). 문화이론은 위기판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적 심리보다는 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사회는 서로 다른 유형의 위협이 있으며, 이것은 사회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삶의 방식으로서 사회구조는 문화적 편견에 따른 세계관을 생성시킨다.

근대사회에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조직 변화의 결과로써 특정한 위기유형들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위험과 위기관련 학문분야의 여러 학자에 의해 유형화되었다(박명준, 2006; Giddens, 1999; 설동훈, 1998; 차용진, 2006; 노진철외, 2004;

www.kci.go.kr

Renn, 2008; 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학회, 2009).

위험에는 비인간적 힘에 의해 생산되며 인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가 있는가 하면, 인간행위의 산물들이 있다. 이러한 2가지 다른 유형은 외적인 위기와 제조된 위기로 규정된다(Giddens, 1999). 거시적 관점에서 위기의 종류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중에서 어떤 것이 위협을 받는가에 따라 분류된다(박명준, 2006). 첫째,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는 국가의 물리적 생존과 유지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도전으로 직접적 도발, 무력적 침략으로 영토의 보전이나 주권의 확립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 해당한다. 둘째, 국가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는 경제성장과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 사회화합과 정의구현 등의 확장된 국가목표에 대한 도전으로 비군사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다. 설동훈(1998)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준거로 하여, 부실공사, 수돗물, 폭력배, 산업재해, 원자력사고, 성추행, 학교폭력, 지진, 유해식품, 실업·실직, 도둑, 대기오염, 화재, 가스사고, 교통사고, 질병 등 열여섯 개 위험을 선별적으로 설정하였다. 차용진(2006)은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을 분석한 결과, 70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 구조는 위험의 두려운 정도,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 등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70개 사회적 위험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위험의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유형I은 위험의 두려운 정도 및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의 유형으로 핵무기실험, 핵물질수송, 후천성면역결핍증,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 오존층파괴, 조류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포함된다. 유형II는 위험의 두려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반면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위험의 유형이다. 이 위험유형으로는 DNA연구, 태양전력, 납성분페인트, 사카린불화물첨가, 피임기구 등이 해당된다. 유형III은 위험의 두려운 정도 및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위험의 유형으로 알콜성 질병, 음주사고, 자전거, 오토바이 납성분 가스 등이 포함된다. 유형IV는 위험의 두려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반면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위험의 유형이다. 이 위험유형에는 전쟁, 다이너마이트, 자동차 사고, 범죄, 수술 등이 포함된다.

위험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방법은 위험 인자가 무엇인가에 따라 위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보통 위험 인자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nn, 2008). 첫째 물리적 인자로 이온화 방사선, 비이온화 방사선, 소음(산업, 레저 등), 운동 에너지(폭발, 붕괴 등), 온도(화재, 과열, 과냉 등)이다. 둘째, 화학적 인자로 유독 물질(분계점), 발암물질, 환경오염인자, 복합적 혼합물 등이며, 셋째, 생물학적 인자로 진균류,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전자 조직 식품, 다른 병원균이다. 넷째, 자연의 힘으로 바람, 지진, 화산활동, 가뭄, 홍수, 해일, 산불, 눈사태 등이며, 다섯째, 사회-커뮤니케이션의 위해로 테러리즘과 사보타지, 인간 폭력(범죄 행위), 굴욕/폭도화/낙인화, (혁신적인 의료 임상실험 등과 같은) 인간에 대한 실험, 대중 히스테리 등이다. 여섯째, 복잡한 위해(조합)으로 음식(화학적이자 생물학적임), 소비자 생산품(화학적, 물리적 등), 기술(물리적, 화학적 등), 건물,

www.kci.go.kr

댐, 고속도로, 다리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 중요한 하부 기반(물리적, 경제적, 사회-조직적,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Satterfield, Mertz, Slovic(2004)는 19개의 위험을 다루고 있다. 기계적 위험으로 농약, 핵폐기물저장, 석탄-석유이용공장. 화학공장, 먼지 등, 라돈 등, 건강위험행동으로 약물, 다중성적 교제, 간접흡연, 백신, 수혈 등, 자연현상산물로 소행성, 자연재해 등, 소비상품으로 핸드폰, 자동차, 전자기기, 비행기여행, 수도물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노진철외(2004)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로서 첫째, 지구적 생태위험으로 한 국가를 넘어 지구적으로 당면한 생태위험으로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삼림파괴, 생태계 균형의 파괴, 지구온난화, 생물멸종 등이다. 둘째, 자연적 재해위험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 재해로 태풍, 지진, 가뭄, 폭우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초래되는 생명과 재산상의 위험 등이며, 셋째, 국가적 안보위험으로 국가 차원에서 야기되는 안보위험으로 전쟁을 비롯하여 준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과 대치로부터 야기되는 위험 국가체제와 국가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 등이다. 넷째, 정치적 억압위험으로 억압적 정치집단이 정치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상함으로써 국민이 생면과 신체상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 기본권유린, 구속 고문 등이다. 다섯째, 경제적 생계위험으로 의식주의 기초적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장기적 경기침체와 경제파국, 실업률에 사회안전망까지 부실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술적 재난위험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산성과 생활편의는 증진되지만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원전사고, 자동차, 지하철, 배, 항공기 등 교통수단 사고, 대형사고 등이 해당한다. 이재은(2005)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를 이루어내기 국가위기의 범위를 전통적 안보위기, 재난(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로 유형화하였다. 국가위기관리학회(2009)에서는 우리사회의 위기영역을 전통적 안보영역, 재난영역, 국가핵심기반영역, 국민생활영역, 국가갈등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은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이다. 둘째, 재난 영역은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해당한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은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유적 등에 관한 위험이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이다. 다섯째, 국가갈등 영역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초래되는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이 해당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험인식의 유형을 전통적 안보영역, 재난영역, 국민생활영역, 국가갈등영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전통적 안보영역에는 핵무기, 전쟁, 테러 등, 재난영역은 태풍이나 비로인한 자연재해, 대형화재나 폭발 등, 국민생활영역은 식품위험, 범죄위험, 신종질병이나 건강위험, 아동청소년범죄, 실업이나 빈부격차의 경제위험, 교통사고 등, 국가갈등영역은 노사 및 지역갈등 등이다.

www.kci.go.kr

3. 위험인식 선행연구 고찰

위험은 개인이나 가정의 미시수준(micro), 공동체나 지역의 중간수준(meso), 국가의 거시수준(macro), 지구나 대륙지역의 초거시수준(super-macro) 등의 다른 수준에서 영향받는다. 공변(covariant)의 위험으로써 중간수준, 거시수준, 초거시수준 등의 위험들은 낮은 가족간(inter-household)변인에 해당하며, 가족집단, 생계 또는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위기의 범주화는 정치, 사회, 경제, 보건, 자연 및 환경위험 등이 된다. 특질(idiosyncratic)의 위험으로써 미시수준 위험은 높은 가족간 변인에 해당한다.

위험은 일시적이며, 흐름에 관련되거나 구조적인 것이다. 일시적 위험은 예측하기 힘든 사건들과 함께 예측이 가능한 주기적이며 계절적 사건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 성장의 저하 또는 농업생산의 감소 등의 흐름에 관련된 위험은 시간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구조적 위험은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기초한 장기적 조건에 관련된다. 부정적 사건은 힘 또는 강도에 따른다(Holzmann & Jorgensen, 2000). 위험의 치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관리를 위한 보다 큰 능력이 요구된다.

위험의 특성에 따른 위험인지의 관계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인지는 사회문화적 특수성 인구통계학적 배경 및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험의 내재적 특성도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정기성, 2004). 한국인들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가장 위험성이 크다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대체로 위험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가장 위험하게 인지하는 분야는 객관적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원자력 분야와 환경 분야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복합적인 위험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오염시설의 강제적 폐쇄 등 물리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대처방안이 선호됨을 지적하였다. 설동훈(1998)은 2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한국인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초래하는 위험 강도에 대하여 원자력사고의 위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유해식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질병, 실업·실직,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쪽에 속하고, 나머지 부실공사, 성추행, 수돗물, 폭력배, 도둑, 가스사고, 지진, 학교폭력 등은 덜 위험한 쪽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지진, 원자력사고, 대기오염, 수돗물, 부실공사, 학교폭력, 폭력배, 산업재해, 성추행 등은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는 반면, 가스사고, 화재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측면이 큰 것으로 진단하였다. 안주희(2008)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후기 근대인식, 신뢰, 불안감, 강박징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은 후기 근대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실제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에 동의하였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음을 밝혔다. 불안감의 형성에 있어 전반적으로는 사회불안의 수준이 실존불안의 수준보다 높았지만 실존불안의 경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불안과 사회불안을 포함하는 불안감의 경우 불안의 정도에 성별과 현재 경제적 수준, 종교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성일수록, 현재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없을수록 불안감의 정도는 높아

www.kci.go.kr

지고 있었다.

이영애・이나경(2005)은 위험지각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적 구조를 찾고자 대학생,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환경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0개 항목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Slovic(1987) 및 Slovic et al(1978, 1984)이 밝혔던 두려움과 지식의 두 위험지각 차원을 검토하였다. 지각된 위험 강도와 사회적 이익을 비롯한 여러 심리적 특성들에서 그 생태학적 태도가 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세 사회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위험인식관련 선행들(이영애・이나경, 2005; 안주희, 2008; 설동훈, 1998; 정기성, 2004; Holzmann & Jorgensen, 2000; Slovic et al., 1978, 1984)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응답자들은 위험영역의 특성에 따라 위험인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위험인식의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보호하고 방과후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상도지역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중 무작위로 6개를 표본추출하였으며, 해당지역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소개 및 설문조사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가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2. 조사도구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 분석에 대한 조사도구는 관련 선행연구(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학회, 2009; 안주희, 2008; 배대식, 2009; 이영애, 이나경. 2005)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청소년분야의 현장전문가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전문가자문을 통해 위험인식 영역을 유형화하였다. 조사도구의 문항은 전통적 안보영역, 재난영역, 국민생활영역, 국민갈등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안보영역에는 핵무기, 전쟁, 테러 등, 재난영역은 태풍이나 비로인한 자연재해, 대형화재나 폭발 등, 국민생활영역은 식품위험, 범죄위험, 신종질병이나 건강위험, 아동청소년범죄, 실업이나 빈부격차의 경제위험, 교통사고 등, 국가갈등영역은 노사 및 지역갈등 등이 해당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척도로 구성되었으며

www.kci.go.kr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위해 220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된 자료는 총 180매였다. 수집된 설문작성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0매를 제외하고 총 170매가 설문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ANOVA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현황 및 위험인식은 빈도분석, 인구학적변인 및 미디어경험정도에 따른 위험인식의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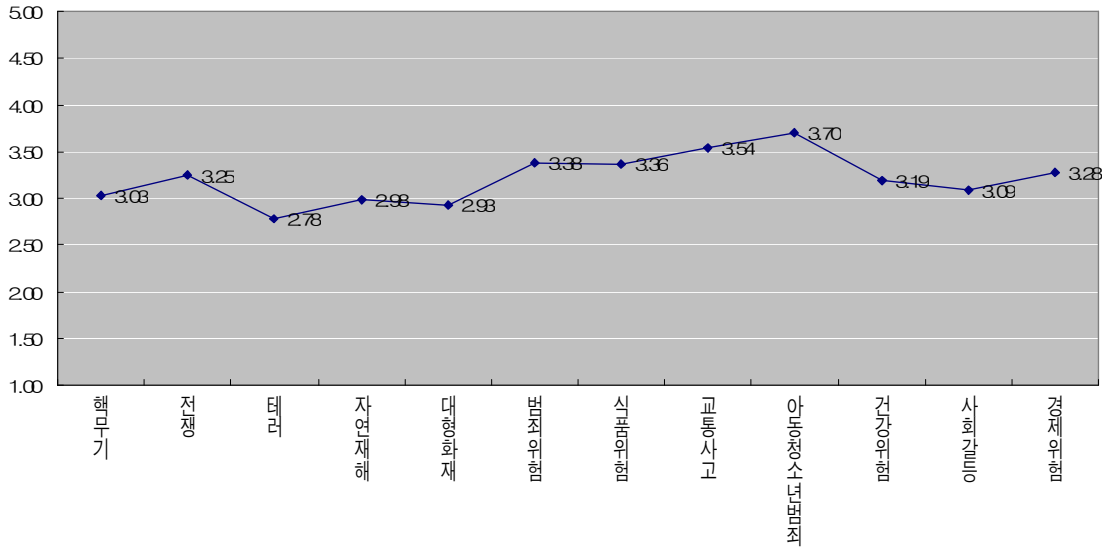
<표 1> 일반현황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83	48.8
	여자	87	51.2
성적	상위권	45	26.5
	보통	71	41.8
	하위권	54	31.8
연령	10세이하	65	38.2
	11-12세	47	27.6
	13-15세	58	34.1
학교	초등학교	113	66.5
	중학교	57	33.5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29.4
	가끔보는	70	41.2
	거의없는	36	21.2
위험관련독서경험	즐겨읽는	33	19.4
	가끔읽는	64	37.6
	거의없는	59	34.7

<표 1>에 제시된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 51.2%, 남자 48.8%이었으며, 학교는 초등학교 66.5%, 중학교 33.5%이었다. 연령으로는 10세이하 38.2%, 11-12세 27.6%, 13-15세 34.1%로 나타났다. 위험관련방송시청 경험에 있어 즐겨봄 29.4%, 가끔 봄 41.2%, 거의없음 21.2%이었으며, 위험

www.kci.go.kr

관련 독서경험은 즐겨봄 19.4%, 가끔읽음 37.6%, 거의없음 34.7%로 나타났다.



<그림 1> 청소년의 위험인식 수준

지역사회 청소년의 영역별 위험인식 수준을 보면 <그림 1>과 같았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위험인식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위험 인식이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 3.54, 범죄위험 3.38, 식품위험 3.36,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의 위험인식에 있어 테러 2.78, 대형화재 2.9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인식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대상 범위위험, 일반범죄인식, 교통사고 등 일반생활영역의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통적인 안보영역이나 자연재해 등의 재난영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위험인식 차이분석

1) 안보위험 영역

청소년의 안보위험 영역에 있어 전쟁 위험인식의 차이를 보면 <표 2>과 같았다. 학교에 있어 중학생의 전쟁 위험인식이 3.63으로 초등학생 3.06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 13-15세 청소년 3.62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청소년 3.30, 10세이하 2.89순으로 나타났다. LSD사후검증결과 13-15세와 10세이하 집단간 차이로 나타났다. 위험관련 방송시청을 즐겨보는 청소년은 3.50으로 가끔봄 3.23, 거의없음 3.1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관련 독서에 있어 즐겨읽는 청소년 3.51로 가끔

www.kci.go.kr

읽음 3.15, 전혀없음 3.30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전쟁 위험인식이 높으며, 13-15세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집단에 비해 전쟁 위험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쟁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3.24	-.119	
	여자	87	3.26		
학교	초등학교	113	3.06	-2.787***	
	중학교	57	3.63		
연령	10세이하	65	2.89	5.230***	
	11-12세	47	3.29		a<c
	13-15세	58	3.62		
성적	상위권	45	2.95	1.428	
	보통	71	3.35		
	하위권	54	3.37		
위험 관련 방송 시청	즐겨보는	50	3.50	1.106	
	가끔보는	70	3.23		
	거의없는	36	3.11		
위험 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3.52	.862	
	가끔읽는	64	3.16		
	거의없는	59	3.31		

*** p<.01

<표 3> 테러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2.64	-1.462	
	여자	87	2.90		
학교	초등학교	113	2.64	-2.005***	
	중학교	57	3.04		
연령	10세이하	65	2.66	2.061	
	11-12세	47	2.61		
	13-15세	58	3.03		
성적	상위권	45	2.69	.952	
	보통	71	2.90		
	하위권	54	2.68		
위험 관련 방송 시청	즐겨보는	50	2.84	.028	
	가끔보는	70	2.81		
	거의없는	36	2.78		
위험 관련 독서	즐겨보는	33	3.09	1.118	
	가끔읽는	64	2.75		
	거의없는	59	2.73		

www.kci.go.kr

*** p<.01

청소년의 위험영역에서 테러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를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3.04로 초등학교 2.6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참고).. 성별에 있어 여자 2.91로 남자 2.64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 13-15세 청소년 3.03으로 11-12세 2.62, 10세이하 2.66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험관련 방송시청 경험에 있어 즐겨보는 청소년 2.84, 가끔보는 2.81로 거의없음 2.78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재난위험 영역

재난위험 영역중 자연재해 위험인식의 차이는 <표 4>와 같았다. 학교에 있어 중학교 3.21로 초등학교 2.87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에 있어 13-15세 청소년 3.21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청소년 2.94, 10세이하 2.82순으로 나타났으며, LSD사후검증 결과 13-15세 및 10세이하 집단간 차이였다. 이것은 학교 및 연령집단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인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관련 독서경험에 있어 즐겨읽음 3.0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읽음 3.00, 거의없음 2.95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자연재해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3.04	.665	
	여자	87	2.93		
학교	초등학교	113	2.86	-2.073***	
	중학교	57	3.21		
연령	10세이하	65	2.81	2.520*	
	11-12세	47	2.93		a<c
	13-15세	58	3.21		
성적	상위권	45	2.98	.230	
	보통	71	3.00		
	하위권	54	2.96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2.86	.591	
	가끔보는	70	3.06		
	거의없는	36	3.02		
위험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3.03	.076	
	가끔읽는	64	3.00		
	거의없는	59	2.95		

*** p<.01, * p<.1

청소년의 화재/폭발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는 학교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참고). 중학교의 화재/폭발의 위험인식은 3.16으로 초등학교 2.8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3-15세 청소년 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2.87, 10세이하 2.77등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www.kci.go.kr

하지 않았다. 위험관련 독서경험에 있어 즐겨읽음 3.12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읽음 2.90, 거의없음 2.88 등이었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5> 화재/폭발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2.92	-.160	
	여자	87	2.94		
학교	초등학교	113	2.81	-1.955*	
	중학교	57	3.16		
연령	10세이하	65	2.77	2.031	
	11-12세	47	2.87		
	13-15세	58	3.15		
성적	상위권	45	3.04	.281	
	보통	71	2.83		
	하위권	54	2.96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3.00	.170	
	가끔보는	70	2.94		
	거의없는	36	2.86		
위험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3.12	.574	
	가끔읽는	64	2.90		
	거의없는	59	2.88		

* p<.1

3)국민생활위험 영역

국민생활위험 영역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위험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표 6> 참고). 성별에 있어 여자 3.86으로 남자 3.5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있어 중학교 4.07로 초등학교 3.51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3-15세 청소년 4.05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3.60, 10세이하 3.46순으로 나타났다. LSD사후검증 결과 13-15세 청소년과 11-12세, 10이하 집단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표 6>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3.53	-1.837*	
	여자	87	3.86		
학교	초등학교	113	3.51	-2.956***	
	중학교	57	4.07		
연령	10세이하	65	3.46	4.199**	
	11-12세	47	3.59		a, b<c
	13-15세	58	4.05		
성적	상위권	45	3.84	2.296	
	보통	71	3.54		
	하위권	54	3.78		

www.kci.go.kr

<표 6>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험인식 차이분석(계속)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4.04	3.576**	
	가끔보는	70	3.70		a>c
	거의없는	36	3.36		
위험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4.03	1.338	
	가끔읽는	64	3.66		
	거의없는	59	3.64		

** p<.05, * p<.1

위험관련 방송시청 경험에 있어 즐겨보는 청소년 4.04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보는 3.70, 거의없는 3.36순으로 나타났다. LSD사후검증 결과 즐겨보는 청소년과 거의없는 청소년집단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위험관련 독서경험에 있어 즐겨읽는 4.0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읽는 3.66, 거의없는 3.64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범죄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3.38	.857	
	여자	87	3.38		
학교	초등학교	113	3.21	-2.653***	
	중학교	57	3.72		
연령	10세이하	65	3.17	3.442**	
	11-12세	47	3.28		a<c
	13-15세	58	3.71		
성적	상위권	45	3.31	.470	
	보통	71	3.35		
	하위권	54	3.48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3.60	1.554	
	가끔보는	70	3.40		
	거의없는	36	3.14		
위험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3.61	.612	
	가끔읽는	64	3.33		
	거의없는	59	3.37		

** p<.05, *** p<.01

청소년의 범죄 위험인식을 연령 및 학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3.72로 초등학교 3.21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13-15세 청소년의 범죄 위험인식 3.71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3.28. 10세이하 3.17순으로 나타났으며, LSD 사후검증결과 13-15세 및 10세이하 청소년집단간 차이였다. 위험관련 방송시청 경험에 있어 즐겨보는 청소년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보는 3.40, 거의없는 3.14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관련 독서경험에 있어 즐겨있는 청소년 3.61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읽는 3.33, 거의없는 3.37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관련 방송시청 및 독서경험에 대

www.kci.go.kr

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제위험 인식차이는 <표 8>과 같았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3.60으로 초등학교 3.12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 13-15세인 청소년 3.58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3.17, 10세이하 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LSD 사후검증결과 13-15세와 10세이하 청소년집단간의 차이였다. 위험관련 방송시청 경험에 있어 즐겨보는 청소년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보는 3.26, 거의없는 2.86순으로 나타났으며, LSD 사후검증결과 즐겨보는 집단과 가끔보는, 거의없는 집단간의 차이였다. 위험관련 독서경험에 있어 즐겨읽는 청소년 3.85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읽은 3.19, 거의없는 청소년 3.14로 나타났으며, LSD 사후검증 결과 즐겨읽는 청소년과 가끔읽는, 거의없는 청소년 집단간의 차이였다.

<표 8> 경제위험 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3.32	.484	
	여자	87	3.24		
학교	초등학교	113	3.12	-2.627***	
	중학교	57	3.59		
연령	10세이하	65	3.09	3.359**	
	11-12세	47	3.17		a<c
	13-15세	58	3.58		
성적	상위권	45	3.49	1.297	
	보통	71	3.22		
	하위권	54	3.18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3.70	6.392***	
	가끔보는	70	3.26		a>b, c
	거의없는	36	2.86		
위험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3.84	5.154***	
	가끔읽는	64	3.19		a>b, c
	거의없는	59	3.13		

** p<.05, *** p<.01

<표 9> 교통사고 위험인식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성별	남자	83	3.61	.857	
	여자	87	3.47		
학교	초등학교	113	3.37	-2.922***	
	중학교	57	3.88		
연령	10세이하	65	3.31	4.282**	
	11-12	47	3.47		a<c
	13-15	58	3.86		
성적	상위권	45	3.69	.580	
	보통	71	3.53		
	하위권	54	3.42		

www.kci.go.kr

<표 9> 교통사고 위험인식 차이분석(계속)

구분		빈도	평균	t/F	비고
위험관련 방송시청	즐겨보는	50	3.74	1.928	
	가끔보는	70	3.58		
	거의없는	36	3.28		
위험관련 독서	즐겨읽는	33	3.75	.798	
	가끔읽는	64	3.56		
	거의없는	59	3.46		

** p<.05, *** p<.01

청소년의 교통사고 위험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중학교 3.88로 초등학교 3.37보다 높았다. 연령에 있어 13-15세 청소년 3.86으로 가장 높았으며 11-12세 3.47, 10세 이하 3.31순으로 나타났으며, LSD 사후검증결과 13-15세와 10세이하 청소년집단간의 차이였다. 위험관련 방송시청 경험에 있어 즐겨보는 청소년 3.74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보는 청소년 3.59, 거의없는 청소년 3.28순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련 독서경험에 있어 즐겨읽는 청소년 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끔읽는 청소년 3.56, 거의없는 청소년 3.46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Ⅴ. 결론

우리 사회는 근대성에 기초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은 과거와는 달리 인위적이며 일상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현재의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험유형을 전통적 안보영역, 재난영역, 국민생활영역, 국민갈등영역 등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유형별 위험인식정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들은 영역별 위험인식에 있어 대체로 높은 위험인식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의 위험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위험인식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위험인식에 있어 교통사고, 범죄위험, 식품위험 등의 국민생활영역에서의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테러, 대형화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인식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위험영역에 있어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위험이 재난영역이나 안보영역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인식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상적인 국민생활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실천노력이 요청되어진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위험수준으로 테러, 대형화재 등에 대한 위험인식은 상대적으로

www.kci.go.kr

낮게 나타났으나 이들 위험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 및 위험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위험인식의 차이에 있어 전쟁위험, 아동·청소년 범죄, 교통사고, 경제위험 등의 위기영역에 있어 중학교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청소년이 초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사회의 위험현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본격적인 청소년기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은 사고능력이 심화속에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므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간혹 사회현상에 대한 흑백논리나 이분법적인 사고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여러 위험에 대해 극단적인 공포감을 느끼거나 반면 여러 위험에 대한 전혀 무관심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 및 기성세대가 위험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 혹은 대화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기초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위험 및 위기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관련 방송시청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시청경험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았으며 위험관련 독서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독서경험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위험인식이 높았다. 즉 위험관련 방송시청경험이나 위험관련 독서경험 등의 미디어를 통해 사회위험을 접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의 위험인식에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을 대체로 인정함에도 미디어수용자에게 미디어는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Anders & Lennart, 2000) 그러나 이 연구결과와 같이 청소년의 위험인식은 미디어에 의해 적지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 위험인식은 개인적 위험인식에 비해 쉽게 변화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위험인식은 위험예방과 극복을 위한 행동을 유발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천에의 참여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향후 청소년의 미디어를 통한 위험인식과 실천행동에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이며 가능한 연계점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위험영역의 설정과 연구대상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및 위험연구에 있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의 건강한 인식과 역할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www.kci.go.kr

김영평, 최병선, 소영진, 정익재. 1995.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보. 29(3):

935-954.

노진철, 서문기, 이경용, 이재열. 2004. 위험사회와 생태적 사회적 안전.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박동균. 1995. 행정에 있어 위기관리 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복지행정연구. 11: 159-174.

박동균. 2004. 위기관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분석. 2004년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4-387.

박동균. 2005a.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0: 103-125.

박동균. 2005b. 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51-88.

박명준. 2006. 위기관리 이론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의 성격과 대응방안.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범. 2008. 위험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항공경영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79-189.

박영신, 김의철. 2001. 한국 청소년의 안전의식 :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안전교육학회지. 4(1): 5-24.

배대식. 2009.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설동훈. 1998. 한국인의 위험 인식.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 20(1): 22-61.

안주희.2008. 대학생의 위험사회인식과 '불안' 그리고 강박징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형기. 2002. 위험의 사회·심리학적 속성 위험의 사회·심리학적 속성. 한국행정연구. 11(4): 68-95.

유문무. 2004. 위험사회와 성찰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8: 219-256

이덕로, 오성호, 정원영. 2009. 국가위기관리능력의 제고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233-254.

이상헌. 2008. 국가 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훈, 최수정. 2009. 위험 인식의 성별 차이와 그 원인. 한국사회학회 2009년도 사회학대회 논문집: 923-939.

이승훈. 2009. 현대 사회의 위험과 위험 관리: "위험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문화. 29: 61-88

이영애, 이나경. 2005. 위험지각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적 구조. PMORP WORKSHOP: 위험지각의 심리적 메카니즘: 1-12

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위기관리논집. 1(1): 20-32.

정기성. 2004. 한국사회의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7(1): 209-232

조영갑. 2005.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학의 정립. 한국위기관리논집. 1(1): 100-116.

차용진. 2006. 위험인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81-201.

www.kci.go.kr

Anders A. F. Lennart R. G. 2000. Risk Perception and the Media. *Journal of Risk Research*. 3(1): 31-50.

Anantho. S. 2007. *The Perception of Risk Society in Thailand*. http://www.siriwan.info/SRA1.pdf

Austen, L. 2009.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by Young People. *Health, Risk & Society*. 11(5): 451-470.

Barnett, J. Breakwell, G. M. 2001. Risk Perception and Experience; Hazard Personality Profil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Risk Analysis*. 21: 171-178.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

Beck, U. 1995.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 Cambridge: Polity Press.

Chauvin B., Hermad, D., Mullet, E.2008. New Age Beliefs and Societal Risk Percep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8): 2056-2071.

Douglas, M. 1992. *Risk and blame; Essays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Press.

Gustafson, .P. E. 1998. Gender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Risk Analysis*. 18(6): 805-811.

Green, E., Mitchell W., Bunton, R. 2000. Contextualizing Risk and Danger; An Analysis of Young People's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Youth Studies*. 3(2): 109-126.

Holzmann, R. Jørgensen. S. 2000.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0006. Washington: World Bank.

Koné, D. Mullet, E. 2006. Societal Risk Perception and Media Coverage. *Risk Analysis*. 14(1): 21-24..

Jackson, J. Allum, N. Gaskell, G. 2006. Bridging Levels of Analysis in Risk Perception Research: The Case of the Fear of Crime.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7. http://www.qualitative-research.net/index.php/fqs/article/view/63/130

Luhmann, N. 1991. *Soziologie des Risikos*. Walter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Sjöberg. L. 2000. Factors in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0(1): 1-11.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In S. Krimsky &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117-152). New York: Praeger.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4. Behavioral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Risk and Safety. *Acta Psychologica*. 56: 183-203.

Renn, O. 2008. *Risk Governance*. Earthscan. London.

Tversky A, Dahneman D. 1974;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www.kci.go.kr

1124 - 1131.

Satterfield, T.A. Mertz, C.K. Slovic, P. 2004 Discrimination, Vulnerability, and Justice in the Face of Risk. *Risk Analysis*. 24(1): 115-129.

Zwick, M. M. 2005. Risk as Perceived by the German Public: Pervasive Risks and 'Switching' Risks. *Journal of Risk Research*. 8(6): 481-498.

李采植: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청소년리더십기술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2005)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의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청소년, 긍정적 청소년개발,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등이며, 청소년문제행동론(공저, 2002),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공역, 2007) 등의 저서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경찰인식분석(2009),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방안(2008), 청소년동반자역할과 CYS-Net향후과제(2007) 등이 있다(hope89@dhu.ac.kr).

투 고 일: 2010년 8월 18일
수 정 일: 2010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2일

www.kci.go.kr